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나보다 더 만나기를 기다리는 분

오늘 독서들은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해주며, 우리들의 멸망보다는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을 미루시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심판 날을 기다릴 뿐 아니라 그 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외칩니다.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고, 주님 오실 길을 고르라.”(루가 3,5)

요즘처럼 도구들이 발달했다면, 중장비를 들이대고 굽은 길을 쪽 펴고, 경사진 길은 낮추고 높은 골짜기와 산을 메우고 깎는 것은 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골짜기와 산들을 위해서는 어떤 중장비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높은 산은 탐욕과 이기주의, 하느님 앞에 겸손할 줄 모르는 교만,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음, 스스로 높은 체하는 독선과 고집입니다. 고통이 따르지만 깊이 뉘우치고 뼈를 깎듯이 깎아내야 합니다.

깊은 골짜기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장벽,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의심과 불신, 사회의 어두운 구조입니다. 이것은 자비와 사랑으로 메워야 합니다.

굽은 길은 인색함과 반항과 불만으로 얼룩진 마음들, 부정과 부패로 양심을 저버리는 일, 하느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비뚤어진 생각, 자신의 도리를 소홀히 하는 나태한 정신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처음의 마음으로 되돌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 주님 오시는 길을 닦고 고르게 해야 합니다. 마음의 '회개'가 없는 곳에는 메시아도 오시지 않습니다. 만일 마음의 회개가 없는데도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것은 오직 그분의 전적인 우리에게 대한 사랑 때문이고, 또 그분의 사랑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을 벌하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대림시기'는 오랜 동안의 황막한 객지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즉 회개[回頭]하는 시기이다.

오늘 둘째 독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이 늦추어지는 까닭을 나름대로 설명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날이 늦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혹시 아직 덜 회개한 나 때문에 그때가 늦춰지고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회개하려는 사람들에게 내가 방해꾼(걸림돌)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 날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권고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그 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라.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티와 흠이 없이 살면서 자신과 이웃과 하느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손을 놓고 하늘만 쳐다보며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죽어 무덤에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곧고 바른 길을 통해 잘 준비(회개)된 터가 될 때 그곳에 주님께서 탄생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듬도록 합시다. 오시는 주님을 향해 반듯이 나아갑시다. 바라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음에 감사합시다.

우리보다 더욱 간절하게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모전동 본당 이준건 콜베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며 인권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가진 자들의 탐욕으로 인권이 짓밟히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불평들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92번 '구세주 내 주 천주여'

본기도

†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세상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천상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이사야서 40장 1절-5절, 9절-11절

안 내 :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은 결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새시대를 열어준다고 선포합니다.

묵 상 : 인간이 고귀한 이유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화답송 :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제2독서 : 베드로 2서 3장 8절-14절

안 내 : 베드로 사도는 하느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이 꼭 이루어지니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라고 경고합니다.

묵 상 : 사랑의 증거는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은 희망이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희망으로 기다리는 그 행동에 있습니다. 사랑, 희망, 기다림은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인간이 짓는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1장 1절-8절

강 론 : ‘나보다 더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분’(1-2쪽)

예물준비성가 : 217번 ‘정성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 152번 ‘오 지극한 신비여’

영성체 후 묵상

믿음을 가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인간이었는지 반성해 봅니다.
진정 우리는 낮은 골짜기였으며 경사가 급한 협곡이었으며
우묵한 곳으로 내려가는 낭떠러지였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 안의 그 골짜기를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어둡고 무섭고 험한 골짜기를
성령의 열매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인내와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골짜기가 아니라
하느님이 계시는 위대한 산으로 변모되기 시작합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81번 ‘요르단 강에서’

※ 공소사목 성금

백춘희님	50,000원	박기서님	30,000원
민병익님	50,000원	아천공소	100,000원
신애공소	50,000원	죽전공소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10,22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림

■ 2017년 열린 성경 강좌 8

- 일시 : 12월 11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준비물 : 신,구약 성경
- 참가비 : 1인 2,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예비신학생 종강피정 및 미사

- 일시 : 12월 16일(토) 14:30 - 17일(주일) 15: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예비신학생들과 부모님들
- 미사주례 :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준비물 : 미사준비

■ 청소년 견진캠프

- 일시 : 2018년 1월 12일(금) 15:00
- 14일(주일) 17:00
- 장소 : 문경 정보촌 유스호스텔
- 대상 : 교구 내 중·고등부 견진대상자
(현 중1-고2)
- 참가비 : 1인 80,000원

■ 안동교구청 사목국 직원 모집

- 지원자격 :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미혼),
문서편집 가능자(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운전면허 포함)
-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및 세례증명서
- 서류 접수 및 문의 : 12월 29일(금)까지
858-3114-5, kimatheo@hanmail.net
- 면접 : 서류 전형 후 개별 통보

■ 수취폐 도미네 생활성가 대림피정

- 일시 : 12월 17일(주일) 19:30
- 장소 : 함창 성당

■ 꾸르실료 월례 미사

- 일시 : 12월 18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미사주례 :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남성 제42차 꾸르실료

- 일시 : 2018년 1월 11일(목)16:00-14일(주일)16: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 120,000원
- 추천 인원 : 각 본당 3명 내외
- 신청 : 12월 22일(금)까지
- 자격 : 영세 후 3년이 경과하였거나
견진성사를 받은 분, 65세 이하
- 신청처 : 본당신부님, 꾸르실료 간사

■ 제85차 ME 주말

- 일시 : 2018년 1월 19일(금)19:00-21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신청마감 : 1월 8일(주일)까지
- 자격 : 혼인한지 5년 이상 된 부부,
짝교우, 비신자, 타종교인 가능,
사제, 수도자
- 문의 및 신청 : 안동ME대표부부
(010-6580-8408, 010-6500-8408)

■ 가톨릭상지대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정시 1차 모집 : 2018년 1월 6일(토) ~ 1월 16일(화)
- 입학문의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023
<http://ipsi.csj.ac.kr>

■ 갈전본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매주 주문판매

- 교우들이 직접 농사지은 콩을 사용하여 전통방식으로 메주를 만듭니다. 교우들이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 문의 : 김선희 로사 010-4945-9804
임점녀 노엘라 010-3251-5052

■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18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 목적 :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 부문 : 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 신청기간 : 12월 18일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
cafl@cbck.or..kr
- 문의 : 주교회의 평신도기금운영위원회
(02-460-7533)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루카 4,43)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982년 대림 제2주일을 인권주일로 정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우리 교회의 자각과 각성을 호소”(1982년 제1회 인권주일 담화)한 데 이어 2011년부터는 대림 제2주일을 ‘사회교리주간’으로 지내기로 결정하며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각 본당에서 사목자들이 강론과 예비자교리와 견진교리 등을 통해 사회교리를 적극적으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신도들은 현실 안에서 사회와 정치 활동을 담당하고 있고, 현세 질서를 쇄신할 예언적 수행의 사명을 지니고 있기에 사회교리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실천하기 바랍니다.”(2011년 제30회 인권주일 담화) 바오로 6세 교황님의 회칙 「민족들의 발전」 반포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한국 천주교회는 이 권고를 상기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현안들인 ‘사회의 쇄신’과 ‘평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사회교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하는데, 이 체제는 확실히 시민들에게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며, 피통치자들에게는 통치자들을 선택하거나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평화적으로 대치할 가능성을 보장해 준다. 따라서 교회는 사적 이익이나 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 체제를 점령하고 폐쇄된 지배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주면 안 된다.”(요한 바오로 2세 「백주년」, 46항) 탄핵과 대선은 이 가르침을 되새기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이끌어간 동력은 ‘촛불’로 상징되는 ‘시민들의 참여’이며, 이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 체제를 점령하고 폐쇄된 지배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쇄신이 올바로 그리고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마태 5,6)로서 함

께 기도하고 연대하며 의로움이 깃든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진정 구원을 받아야 하고 인간 사회는 쇄신되어야”(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3항)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평화의 사도’여야 합니다. 올 한 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유난히 심하였고 그러한 긴장의 이면에는 무기의 개발과 확산, 거래가 자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군비 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315항)는 교리를 언제나 기억하며, 분쟁을 해결하는데 외교와 대화를 강조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외교는 ‘화해와 연대의 문화’를 증진시킴으로써 ‘불신과 증오의 장벽’을 허물어 가는 끝없는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예술로서의 외교는, 상호 비방과 무익한 비판이나 무력시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조용한 경청과 대화를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확신 위에 그 토대를 두기 때문입니다.”(프란치스코 교황, 2014년 8월 14일 청와대 연설)

마지막으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지난 추계총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천주교회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사회적 약자를 해마다 선정하여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실천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농·어촌 이주민 노동자들의 현실에 관심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생명과 인권의 존엄한 가치를 보호하는 일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사명이기에, 약자인 태아 생명의 존중과 사형제 폐지에 대한 관심도 촉구합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약자들의 처지에 관심을 갖고, 복음의 영으로 공감과 연대해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대림과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2017년 12월 10일 대림 제2주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



살림터 이야기

마지막 잎새

조태영 세례자 요한
(안동가톨릭문인회)

벌써 2017년도 마지막 달이다. 2018년도는 살림터 이야기의 필진이 바뀌기 때문에 이번 글이 살림터 이야기에서는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다. 2년 동안 살림터 이야기에 실었던 글이 비록 부족한 글이었지만 독자들의 영성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나 역시 글을 쓰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다.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 삶의 어느 한 순간을 끄집어내어 재조명함으로써 깊은 성찰을 통해 자기완성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자서전을 쓰게 되면 자기 성찰을 통해 보다 이상적인 자화상을 그려 갈 수 있을 것이다.

바람이 몹시도 세차게 부는 추운 겨울에는 문득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가 떠오르기도 한다.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뉴욕의 어느 협수룩한 거리의 2층에는 존시라는 페렴을 앓고 있는 소녀화가가 살고 있었고 1층에는 베어만이라는 노인화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역시 폐렴환자였다. 존시는 폐렴증세가 악화되자 생명에 대한 희망을 잃고 창너머 길 건너편 담장에 있는 담쟁이넝쿨의 잎사귀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도 죽을 것이라는 절망에 빠져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바람이 몹시도 세차게 몰아쳤다. 날이 새자 존시는 담쟁이 잎이 다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힘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모진 바람에도 불구하고 담쟁이 잎 하나가 벽에 붙어 있었다. 거센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은 담쟁이 잎을 바라보면서 존시는 강한 생명력을 얻게 되어 병세가 호전된다. 며칠 뒤에 베어만 노인이 죽었다는 소식과 벽에 붙어 있는 담쟁이 잎은 베어만 노인이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베어만 노인은 한 소녀에게 생명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밤새 담 벽에 불후의 명작인 담쟁이의 마지막 잎새 하나를 그린 후 과로로 죽었다. 이 이야기가 올해는 내게 더 큰 의미를 주는 것 같다.

올해는 내 나이가 70이 되는 해라서 그런지 특별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내게는 새로운 가치관이 되었다. 모든 사물을 볼 때는 마지막으로 보는 것 같이 보게 되었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처럼 대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보는 세상은 보는 것마다 아름답고 신비로우며 어느 누구도 반갑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지난 가을에는 <문경새재 걷기대회>, <경주 불국사와 버드파크 관광>, <무릉계곡 등반> 등 다양한 행사에 참가했었다. 문경새재 걷기대회나 무릉계곡 등반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입구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비록 걷는데 장애가 있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단 1m라도 더 걷고 싶었고 아름답게 물든 단풍이나 갖가지 모양의 기암괴석은 물론이고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나 길옆에 늘어선 잡초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신기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니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나쁜 말 할 일이 없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었다. 이처럼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내 생활을 크게 변화시켜주었다.

내가 <마지막>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도 성령께서 주신 선물일 것이다. 우리들은 일상 속에서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호연지기(浩然之氣) 같은 것이 일어나 뜻밖의 좋은 생각이나 훌륭한 일을 할 때가 있다. 이때 주로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의 도움을 청해놓고, 실제로 성령의 도움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자기의 공로로 돌리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의 일상 속에 성령께서 함께하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신심은 한 층 더 깊어 질 것이다.